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본질적 속성을 지닌 독립적인 실체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체의 본질적 속성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extension)’인 반면, 정신의 본질적 속성은 공간적 크기나 위치를 갖지 않는 ‘사유(thought)’이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사유와 연장은 서로 배타적인 속성이다. 그러므로 사유를 본질로 하는 존재와 연장을 본질로 하는 존재를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은, 한 실체에 양립 불가능한 본질적 속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속성의 대비를 통해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수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실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 정신과 신체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경험할지라도, 이러한 결합 경험이 두 실체가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 곧 ‘수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나)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맞서, 현대 심리철학의 동일론은 정신적 상태가 곧 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동일론자들은 고통, 공포, 기쁨과 같은 심리적 경험이 신경세포의 활성화나 특정 뇌 부위의 활동 패턴과 같은 물리적 상태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별개의 실체가 일으키는 두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서로 다른 어휘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동일론은 존재론적 절약의 원칙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한다. 만약 정신적 상태를 뇌의 물리적 상태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관찰 불가능한 비물질적 실체를 세계의 구성 요소로 추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불필요한 존재자를 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절약이 곧 동일성의 증명은 아니다. 두 현상이 항상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일 가능성, 혹은 둘 모두가 제3의 조건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론은 단순한 동시 발생의 관찰을 넘어, 심리적 설명을 물리적 수준의 설명으로 ㉠ 환원할 수 있음을, 즉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 사이의 안정적인 대응이 확인되어 실제로 물리적 설명이 심리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1.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실체의 속성 대비를 통해 두 실체의 구별(비동일성)을 도출하고, (나)는 특정 관점의 주장을 소개하며 그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철학자의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나)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정신과 신체의 결합 경험을 근거로 두 실체의 동일성을 검토하고, (나)는 정신 상태와 뇌 상태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동일성 주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상반된 두 이론의 공통된 전제를 분석하고, (나)는 그 전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 ⑤ (가)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나)는 특정 개념이 현대 학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긴밀한 결합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근거로 두 실체가 수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② 데카르트에 따르면, 공간적 연장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실체는 사유를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실체와 동일할 수 없다.
- ③ 동일론에 따르면, 고통이라는 심리적 경험과 특정 신경세포의 활성화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른 서술이다.
- ④ (나)는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별도의 정신 실체를 가정하는 방식보다 가정해야 할 존재자를 늘린다고 본다.
- ⑤ 두 현상이 항상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현상이 동일한 실체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나)의 관점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과 신체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경험은 두 실체가 실제로 하나임을 직접 입증하므로, 정신을 별도 실체로 볼 필요는 없다.
- ② 뇌의 물리적 상태로 정신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관찰 불가능한 비물질적 실체를 가정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설명이다.
- ③ 정신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가 항상 함께 나타난다는 경험적 관찰만으로는, 비물질적 실체의 존재를 완벽하게 반증할 수 없다.
- ④ 심리적 어휘와 물리적 어휘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이다.
- ⑤ 정신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하나의 실체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범주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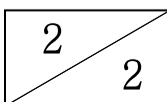
— < 보 기 > —

뇌과학자 A는 공포를 느낄 때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두 상태가 단순히 동시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편도체의 활성화 패턴만으로 피험자의 공포 경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편도체를 물리적으로 조절하면 공포 경험도 그에 따라 변화함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A는 “공포라는 심리적 경험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편도체 활성화라는 물리적 설명으로 완벽히 대체될 수 있으므로, 공포라는 정신 상태와 편도체 활성화라는 신체 상태는 수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 ① (가)의 관점에서, 편도체를 물리적으로 조절하여 공포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비공간적인 공포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 ② (나)의 관점에서, A의 조절 실험은 편도체의 변화가 공포 경험의 원인임을 입증한 것이므로, 이러한 인과 관계의 확인은 두 상태의 수적 동일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 ③ (가)의 관점에서, A의 실험은 두 상태의 긴밀한 결합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공간적 사유에 속하는 정신 상태와 공간적 연장을 지닌 신체 상태의 수적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나)의 관점에서, A가 심리적 설명을 물리적 설명으로 완벽히 대체하려는 시도는 두 현상이 서로 다른 실체의 작용임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존재론적 절약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⑤ (가)의 관점에서, 공포 경험과 편도체 활성화 간의 정밀한 예측 및 통제 관계가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은 두 상태가 수적으로 하나인 동일한 실체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5. 문맥상 ㉠‘환원’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잡한 정신 현상을 더 기본적인 물리적 상태의 작용으로 설명함.
- ② 정신적 현상을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의 작용으로 인정함.
- ③ 서로 다른 현상이 시간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만을 확인함.
- ④ 정신적 경험을 관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명 대상에서 제외함.
- ⑤ 물리적 설명과 심리적 설명을 서로 독립된 층위로 보존함.



제 1 교시

## 국어 영역

해설지

정답 및 해설

정답표

1번: ① / 내용 전개 방식 / 중

2번: ④ / 내용 이해 / 중

3번: ② / 관점 비판 / 중

4번: ③ / 보기 적용 / 상

5번: ① / 어휘 의미 / 하

문항별 상세 해설

- 1. [내용 전개 방식] 정답 ①
- 해설: (가)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본질적 속성의 대비를 통해 정신과 신체의 비동일성을 도출한다. (나)는 동일론의 주장을 소개하고, 동일론이 성립하려면 심리적 설명을 물리적 설명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밝힌다.
- 2. [내용 이해] 정답 ④
- 해설: (나)는 정신적 상태를 뇌의 물리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비물질적 실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환원적 설명이 가정해야 할 존재자를 늘린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 3. [관점 비판] 정답 ②
- 해설: 동일론은 정신적 경험을 뇌의 물리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관찰 불가능한 비물질적 실체를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존재론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설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4. [보기 적용] 정답 ③
- 해설: (가)의 관점에서는 공포 경험과 편도체 활성화가 긴밀히 결합되어 보이더라도, 비공간적 사유와 공간적 연장은 서로 배타적인 본질적 속성이므로 두 상태의 수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5. [어휘 의미] 정답 ①
- 해설: 문맥상 ㉠'환원'은 심리적 상태를 물리적 수준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정신 현상을 더 기본적인 물리적 상태의 작용으로 설명한다는 뜻이다.

